

MBC 개표방송 등 '뉴욕 TV & 필름 페스티벌'에서 수상



▲ 2023 뉴욕 TV & 필름 페스티벌 어워즈에서 MBC '선택 2022-제20대 대통령선거 개표방송'이 특별 예능 특별 이벤트 부문 동상을 수상했다. 사진=MBC

MBC의 작년 3월 대통령선거 개표방송 '선택 2022'와 SBS의 시사·교양 프로그램 '가디언즈 오브 툰드라', 예능 '공생의 법칙'이 뉴욕 TV & 필름 페스티벌 어워즈에서 동상을 받았다.

19일 양 방송사에 따르면 MBC의 '선택 2022'는 특

별 예능: 특별 이벤트(Entertainment Special: SPECIAL EVENT) 부문에서, SBS의 '가디언즈 오브 툰드라'와 '공생의 법칙'은 각각 환경·생태학 부문과 사회 정의 부문에서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MBC의 개표방송은 고화질 발광다이오드(LED)를 이용해 마련한 생방송 스튜디오에서 각종 선거 관련 자료와 콘텐츠를 전달했다.

'가디언즈 오브 투드라'는 시베리아 툰드라에서 만났던 아이들을 11년 만에 다시 만나 변해가는 환경을 기록한 다큐멘터리다.

'공생의 법칙'은 생태계 교란종이 생겨난 원인을 파악하고 환경 문제를 다룬 예능 프로그램이다. 코미디언 김병만, 배우 배정남, 가수 박군이 출연했다.

뉴욕 TV & 필름 페스티벌 어워즈는 1957년 시작됐으며 전세계적으로 최고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뉴스, 다큐멘터리, 예능 프로그램 등 16개 부문에 걸쳐 시상한다.

한국 드라마 '퀸메이커' 넷플릭스 비영어권 TV 부문 시청 시간 1위

배우 김희애와 문소리가 호흡을 맞춘 정치 드라마 '퀸메이커'가 넷플릭스 비영어권 TV 부문 주간 시청 시간 1위에 올랐다.

19일 넷플릭스 공식 사이트 '넷플릭스 톱(TOP 10)'에 따르면 4월 10~16일 '퀸메이커'의 시청 시간은 1천587만 시간으로 비영어권 TV 부문에서 가장 많다.

14일 공개, 공개 첫 주 3일 시청 시간만으로 1위에 오른 '퀸메이커'는 이미지 메이킹의 귀재인 황도희(김희애)가 약자의 편에 서서 세상과 맞서려는 오경숙(문소리)을 서울시장으로 만들기 위해 선거판에 뛰어들이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다. 문소리가 인권 변호사 오경숙 역을, 김희애가 캠프 총괄본부장 황도희 역을 맡아 열연했다.

김희애는 이날 "모든 배우들이 마치 연극 무대에서처럼 역할에 뿐 빠졌다. 재즈를 연주하듯 어떤 연기를 해도



▲ 정치 드라마 '퀸메이커'가 넷플릭스 비영어권 TV 부문 주간 시청 시간 1위에 올랐다. 사진=넷플릭스

서로 척척 받아주는 걸 보면서 연기자로서 짜릿한쾌감을 느꼈다."며 촬영 당시 현장 모습을 회상했다.

같은 기간 송혜교 주연의 학교폭력 복수극 '더 글로리'는 1천290만 시간 시청돼 비영어권 TV 부문 3위에 올랐다. 조승우가 이혼 전문 변호사를 연기한 '신성한 이혼'은 1천39만 시간 시청돼 4위를 기록했다.

숫자퍼즐 정답

1	4	7	2	5	8	3	6	9
9	2	3	1	4	6	5	7	8
5	6	8	3	7	9	1	2	4
2	1	5	9	3	7	4	8	6
3	7	4	8	6	2	9	1	5
8	9	6	4	1	5	7	3	2
4	3	2	5	8	1	6	9	7
6	5	9	7	2	3	8	4	1
7	8	1	6	9	4	2	5	3

백천 운명철학원

뉴욕, 맨하탄에서 20년 만에 Laguna Woods, Irvine으로 이전!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예언가 백천선생



백천 선생(白泉先生)

한국역술인협회 미주지구 회장
국제 예언가협회 이사장
1976. 한국역술인협회 정회원
1977. 대한 경심연합회 중앙감찰
1986. 세계 예언자 대회 동경
1989. 국제 예언자 대회 홍콩
2008. 한국 역술인협회 부회장
2008. 제20회 서울 국제 역학대회

신수재주궁초재이방택일이아상
영적과 학술을 겸비한 백천선생 감평

애정운/부부운/자녀운/직업운/사업운/재물운/
학업운/주택구입시기/이사운/집매매운/
풍수지리/방향/건강운/대인관계/동업운/
관제/소송/삼재풀이/방책예방/
*부부 특별 상담(숫자운)

*코로나 사태로 당분간 전화상담만 받습니다.

전화[213] 500-6363

상담[909] 347-0505

*Zelle 또는 Venmo로 송금해주세요.

2381 Via Mariposa W #2h, Laguna Woods, CA 92637

티빙 드라마 '몸값' 칸 시리즈 페스티벌 각본상 수상



▲ 제6회 칸 국제 시리즈 페스티벌 각본상
수상한 드라마 '몸값' 포스터. 사진=티빙

티빙 오리지널 시리즈 '몸값'이 19일 프랑스 칸 뷔미에르 대극장에서 열린 제6회 칸 국제 시리즈 페스티벌 폐막식에서 장편 경쟁부문 각본상(Best Screenplay)을 수상했다. 한국 드라마가 이 페스티벌에서 상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몸값'은 베스트 시리즈상, 음악상, 각본상, 배우상(2개) 등 5개의 트로피를 놓고 9편의 후보작과 경쟁한 끝에 각본상을 받았다.

배우 진선규, 전종서, 장률 등이 출연한 '몸값'은 장기밀매 조직이 몸값 흥정을 벌이던 건물에 지진이 일어나며 펼쳐지는 재난 스릴러 시리즈다. 지난해 10월 공개된 이후 배우들의 연기와 긴장감 넘치는 연출로 호평을 받았다.

이충현 감독이 2016년에 내놓은 14분 분량 동명 단편영화가 원작이다. 이번 드라마는 원작을 확장해서 만들었다.

전우성 감독은 " '몸값'이 매우 독특한 콘셉트를 지닌 작품인데 이를 알아봐 주시고 초청해 주셔서 영광"이라며 "여기에 상까지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

티빙 관계자는 "국내 OTT 최초이자 한국 드라마로는 처음으로 칸시리즈 경쟁부문 수상이라는 평거를 거두며 K-콘텐츠 신드롬을 이어갈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전했다.

칸 국제 시리즈 페스티벌은 전세계 시리즈를 (드라마)을 대상으로 하는 축제로 프랑스 칸에서 열린다.